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신영우	학번	202111011
이메일	syw402@kdis.ac.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Reading / LL.M.	(국가) United Kingdom
기 간	2021.12.31 ~ 2022.12.30	[귀국일: 2022년12월2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영국 입국 前 절차) 레딩대학교 포털에서 온라인 등록 완료 및 등록금 1차분(50%) 납부 (https://www.risisweb.reading.ac.uk/si/sits.urd/run/siw_lgn), 어린이집 필요시 사전 컨택 및 예약이 필요합니다.
- (기후/지리) 레딩은 런던 서쪽에 있어서 런던과 위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런던보다는 도시 규모가 훨씬 작고, 약간 더 춥고, 비가 더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은 런던에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레딩기차역-런던 패딩턴역간 기차로 3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국 철도 파업과 연착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런던에서 통학하시는 경우 이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다니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레딩은 **서부 철도교통의 결절점**입니다. 따라서, 카디프, 사우스햄튼, 본머스, 포츠머스, 엑서터, 버밍엄, 옥스포드 등 서부 또는 북서부 주요 도시를 갈 때 레딩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 (전반적인 생활여건) 레딩은 화웨이 등 IT기업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치안은 좋은 편**으로 평가받습니다. Central Reading에는 **Oracle**이라는 큰 쇼핑센터가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또한, **M&S, Sainsbury, Tesco** 등 대형 마트가 브랜드별로 있어서 생활용품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 내에는 한국 마트도 있습니다. 거의 런던 생활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집 렌트비도 런던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크게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거지**로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Lower Earley**가 가장 선호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대부분이 하우스이고, Central Reading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레딩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Central Reading에서 살았는데 큰 문제나 위협요소는 없었습니다만, 밤에는 확실히 노숙자들도 많고, 유흥시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림은 레딩 주거지역 선호도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검은색**이 주거지로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파란색**이 중간 선호지역, **붉은색**이 비 선호 지역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없는 경우, 대체로 변화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래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런던-레딩 위치 >

< 레딩 및 인근 주거지 일반적 평가 >



- (영국 도착 직후 학교 절차) 1) **학생비자(BRP) 수령**(2022년 January Starter는 1월 4일부터 수령가능 하였습니다, 메일로 수령 일시 사전 선택). 일반적으로 BRP가 있어야 영국 내 병원(GP) 등록, 계좌개설,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수령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학생증 수령**(2022년 January Starter는 1월 10일부터 하였습니다). 3) 학교 포털용 **아이디와 패스워드 수령**: 이것을 받아야 학교 이메일, 시간표(TimeTable), 수업 포털(BlackBoard), 온라인 강의 시스템(MS Teams), me@reading, 학교 어플 등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 (GP 등록) 주거지나 학교 인근의 GP를 찾아 연락을 하고, 방문일을 잡아 방문하거나 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받은 후 작성, 회신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진료비는 치과/안과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만 의료 품질은 큰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립GP는 진료비가 유료이나, 의료 품질은 더 좋다고 합니다.) <https://www.nhs.uk/service-search/find-a-gp>에서 인근GP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금융계좌 개설) 영국에서는 집 주소, 학교 Bank Letter, BRP(또는 여권)이 있어야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개설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2회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통장개설 시 송금을 위한 정보(SWIFT code 등)를 확인 받는 것이 좋으며, 제가 이용한 Lloyd Bank의 경우, 계좌 개설 시 발급한 Debit card와 카드 PIN 번호, 온라인뱅킹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받게 되므로, 집 주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터넷 뱅킹인 Monzo는 영국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Monzo 앱을 다운받고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비디오로 개인 정보 확인 녹화를 하면 계좌개설이 당일에 끝납니다. 다만, 카드는 배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소는 아니더라도 영국에서 수령 받을 주소가 필요하긴 합니다.
- (휴대전화 개통) 영국에서는 주요 통신사의 휴대전화 개통은 계좌개설 후 가능합니다. 다만, GiffGaff의 경우 해외 무료 유심 배송이 되고, 통신비가 타 통신사에 비해 저렴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GiffGaff는 한국 주소로 먼저 회원 가입하여 유심칩을 한국에서 무료로 받은 다음, 영국에서 홈페이지나 앱에서 Activate하면 됩니다. 다만, 영국생활 초반에 사용해 본 결과 타 통신사에 비해 통신과 인터넷 품질은 좋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총평) 봄학기 초반인 1월에는 Covid-19 로 인하여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서 교육의 질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지만, **2월부터 대부분의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레딩대학교 LLM 과정의 진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교수진) 모든 교수님들이 적어도 유럽 지역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분들이었고, 실무경험이 있고, 연구실적이나 저서도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국제투자분쟁, 국제상사중재, WTO법** 과목의 교수님은 로펌에서 실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중재재판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현실감 있는 강의였습니다.
- (세미나) 정규수업 이외에도 국제상사분야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 개최 공지가 일주일에 2~3개는 회람될 정도로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 (학생수준) 학생들의 구성은 **아프리카, 아랍, 인도, 중국이 대부분인데, 법조인이나 공무원이** 많아서 최소한 자기 전공분야와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서는 수준높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강의자료)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웠지만, 양적으로도**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많은 내용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예습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며, 추가 읽기자료도 다 업로드 시켜주어서 **자료 획득 측면에서도 유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진로개발) 본인과 큰 관련은 없었지만, 영국 로펌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법 전공 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Job fair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Social Networking) 국제법 분야 대학원생들은 나중에 졸업 이후에도 업무적으로 연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Social Networking 플랫폼 역할을 대학원에서 해주었으면 했는데, 이러한 것이 부족하여 조금 아쉬웠습니다.

< 법학과 건물 및 교수진 소개 >



Our staff			
• Academic and Research staff • Emeritus staff • Visiting and Honorary staff • Research Assistants • Technical Support			
Academic and Research staff			
Name	Position	Telephone	Email
Dr Gwladys Adenot	Visiting Professor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44 (0) 118 378 4122	g.adenot@reading.ac.uk
Dr Polyzoides Alexios	Lecturer Banking Law	+44 (0) 118 378 1108	polyzoides@reading.ac.uk
Professor Rosemary Austhury	Professor	+44 (0) 118 378 3872	roausthury@reading.ac.uk
Dr David Bagshaw	Lecturer International Law	+44 (0) 118 378 4156	david.bagshaw@reading.ac.uk
Dr David Ball	Lecturer Law	+44 (0) 118 378 3641	david.ball@reading.ac.uk
Professor David Bantek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d.bantek@reading.ac.uk
Dr Christopher Bell	Visiting Professor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c.bell@reading.ac.uk
Dr Anna Beckett	Visiting Profess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44 (0) 118 378 3672	a.beckett@reading.ac.uk
David Brown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44 (0) 118 378 1108	d.brown@reading.ac.uk
Professor Thomas Cullen	Professor of Law	+44 (0) 118 378 1108	t.cullen@reading.ac.uk
Prof Elizabeth Cragg	Visiting Professor	+44 (0) 118 378 4122	e.cragg@reading.ac.uk
Professor James Danvers	Head of Centre, Professo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44 (0) 118 378 1108	j.danvers@reading.ac.uk
David Duff	Visiting Professor of Law	+44 (0) 118 378 4122	d.duff@reading.ac.uk
Prof Dr Evans	Lecturer International Law	+44 (0) 118 378 4122	p.evans@reading.ac.uk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개요) 레딩대학교의 법학 석사(LLM) 코스는 크게 **일반 국제법(International Law)**과 **국제 상법(International Commercial Law)**로 나뉩니다. 일반 국제법 코스는 국제법 이론, UN, 인권법 등이 중심이고, 국제 상법은 **WTO법, 국제투자법, 국제금융법**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각 코스별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전공별로 필수 수강과목, 졸업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국제 상법을 선택했습니다.
- (졸업요건) 본인이 선택한 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졸업을 위한 이수 **Credits**은 **180**이고, 과목(Module)은 **20 Credits, 10 Credits**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 Credits**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학기 70 Credits, 여름학기 40 Credits(프로젝트), 가을학기 70 Credits 수업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성적요건은 1) 수강한 180 Credits 평균 점수를 50점 이상 획득할 것, 2) 프로젝트 50점 이상 획득 할 것, 그리고 3)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F는 거의 없지만,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 (필수과목) 본인이 선택한 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2년 기준 **총 3과목 (50 Credits)와 프로젝트 (40 Credits)가** 해당됩니다. 필수과목은 1) 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and the Law, 2) Advance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Issues, 3) Project Skill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dvance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Issues 과목은 국제상법 코스의 소개와 같은 과목으로, 주요 교수님께서 1년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국제상법 관련 이슈를 설명해 주는 과목입니다.
-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전산으로 신청하지 않고, 각 학기 시작 전에 담당자가 각 학생에게 개설되는 과목 목록을 메일을 통해 엑셀로 보내면,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표시해서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선택과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22년의 국제상법 코스의 과목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개설과목 >

PFTZICOLAWHM LLM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Programme Director				
Module Code	Module Title	Credits	Terms taught	Spring Term Selection
Compulsory				
LWMTFR	Project	40	T3	
LWMTFS	Project Skills	10	T2	
LWMTCF	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and the Law	20	T2	
LWMTAI	Advance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Issues	20	T1	
Optional				
Take a minimum of 50 credits and a maximum of 90 credits				
LWMLNV	Contemporary Issues in Environment Law	10	T1	
LWMLIA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0	T1	
LWMTA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IAs Accredited)	20	T1	
LWMTBL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e Law	20	T1	
LWMTCC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and Designs	10	T1	
LWMT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tellectual Property Law	10	T1	
LWMTWB	Internet Law	10	T1	
LWMLCR	Legal Aspects of Corporate Rescue	20	T1	
LWMTW	International trade and WTO Law	20	T1	
LWMTDP	Privacy and Data Protection	10	T2	
LWMTGL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Law	20	T2	
LWMTMA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20	T2	
LWMTT	Intellectual Property Law: Patents and Trade Marks	10	T2	
LWMTFIN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10	T2	
LWMLA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20	T2	
AND				
Take a minimum of 0 credits and a maximum of 40 credits				
ICM106	Financial Markets	20	T1	
ICM128	Risk Management in Financial Services	10	T1	
ICM270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20	T2	
ICM294	Governance and Compliance in Financial Services	20	T2	
ICM295	Topics in Financial Regulation	20	T2	
MMMT157	Ethical and Responsible Management & International Corporate Responsibility	20	T2	

- (실라버스) 각 과목(모듈)의 실라버스는 이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reading.ac.uk/modules/module.aspx?sacyr=2223&school=LAW>
- (수업진행) 봄학기과 가을학기는 각각 11주(6주차는 Reading Week)로 구성됩니다, 20Credits 과목은 1주일에 1회 2시간 수업, 10Credits 과목은 총 10주 중에서 5회(초반 5주, 또는 후반 5주) 2시간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22년의 경우, 봄학기는 1월 10일 ~ 3월 25일, 여름학기 4월 19일 ~ 6월 10일, 여름방학 6월 11일 ~ 9월 25일, 가을학기 9월 26일 ~ 12월 9일 이었습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예습을 해왔다고 가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압축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각 나라에서 변호사 등 법조인이거나 법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온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법적 지식은 갖추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 (과목평가) 과목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Essay 100%로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수님은 출석체크를 하고, 이러한 출석율을 에세이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세이 주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찬반에 대한 근거를 법률 규정, 판례, 학설로 각각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를 찾고, 이해를 해야 분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학점은 점수와 등급이 함께 표시되고, **70~100점이 A, 60~70점이 B, 50~60점이 C, 40~50점은 D, 40점 이하는 F**입니다.
- (논문, 프로젝트) 먼저, 봄학기 **Project Skill (10 Credits)** 모듈에서 **Research Plan**을 작성합니다. **Research Plan**은 주제, 개요, 작성구조, 주요 참고문헌, Project Supervisor 교수님을 선정하여 **Project Skill 담당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고(PPT, 5분내외),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Ms-word로 최대 7페이지의 Research Plan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22년의 경우, Project Skill의 평가는 PPT 및 발표 10%, 최종 Research Plan이 90%였습니다. 이후에 여름학과 방학에 Project Supervisor 교수님과 최소 2차례 미팅을 갖고 완성하여 9월 지정된 날까지 작성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oject도 점수와 등급이 같이 표시**됩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표절은 절대 용서 안되며 각주와 참고문헌을 충실히 달 것을 강조합니다. Project 분량은 **14,000 단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13,000자를 조금 넘겨서 제출**하는 편입니다.(14,000 단어를 넘으면 감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 자료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Academic Writing for LLM 강의 수강 추천**) 영국은 각주와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식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APA 등이 아니라 **OSCOLA**를 따릅니다. 또한, **법학의 경우 법률, 판례, 조약 등 유형에 따라 각주와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울러,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많은 과목이 에세이 100%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 학기 제공하는 **Academic Writing for LLM** 강의를 신청하여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 학기 초에 신청하도록 메일이 오며, 2022년의 경우 총 6회 걸쳐 강의를 하였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House/Flat) 저는 가족들이 있었던 기간에는 주로 런던의 플랏에 거주했고, 혼자 있었던 기간에는 레딩의 하우스에서 거주하였습니다. 1년 단위의 렌트가 아니었고, 수 개월의 단기 렌트였기 때문에 **AirBnb와 주변 영국에 오래 거주하신 한국분을 컨택하여 숙박장소를 구하였습니다.** 하우스는 한국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소규모 정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플랏은 저층 아파트나 빌라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AirBnb를 통한 예약은 가격은 일반적인 장기 렌트보다 비싸지만, 대체로 공과금이나 추가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비품을 제공해주기도 하며, 일부 기업형 임대인은 주기적인 청소 서비스도 제공해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국 하우스와 플랏을 모두 경험해 본 바를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하우스가 더 추운편이었고, 집 주인의 집 상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엄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단, 정원이 있다는 점과 다른 집의 요리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았던 것은 하우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랏은 살면서 추위를 느껴보지 못했고, Covid-19 기간을 거치면서 리모델링을 한 플랏이 증가해서 그런지 시설도 깨끗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옆집의 요리나 일부 국가 사람들의 특유한 냄새가 참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방음도 하우스보다 취약한 편입니다. 아래에 하우스와 플랏의 대략적인 모습을 참고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 FLAT 예시 >



< HOUSE 예시 >



- (기숙사) 직접 생활해보지 않았지만, **기숙사에 살았던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 포털시스템을 통해 기숙사를 예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숙사 형태는 Standard Room without Washbasin, Standard Room with Washbasin, En-suite, Studio, One-bed flat, Family apartments 등이 있다고 합니다.
- (음식) 영국의 음식은 다른 유럽지역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한국보다 비싸면서도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못하다고 생각되어 식사 후에도 만족스러운 느낌이 든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레딩에도 한국 음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음식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Central Reading만 해도, 한식, 중식, 일식, 동남아음식, 터키, 중동, 아프리카, 그리스 및 이탈리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게 되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식재료비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편으로 생각됩니다.
- (뉴몰든) 런던 남서부에 한인타운이며 유럽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레딩에서 뉴몰든까지 가는 것이 기차로 1~2회 갈아타야 하는 등 은근히 복잡하고, 요즘에는 한국 슈퍼나 식당이 곳곳에 있어서 **자주 방문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 참고: 영국 집 렌트 관련 수집했던 정보 정리 >

- (홈페이지) Rightmove, Zoopla, www.gumtree.com, spareroom.co.uk, housepals.co.uk, 영국사랑 등
- (Viewing) 부동산에 전화/이메일을 통해 관심있는 매물에 대한 뷰잉(왓츠앱같은 화상 뷰잉도 가능) 예약, 뷰잉 자체는 잘 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겨울에 크리스마스 휴가가 꽤 길고, 이 기간에는 뷰잉이 어려운 편이라고 하니 January Starter의 경우, 좀 더 일찍 매물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계약금) 뷰잉 후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부동산 회사에 집 계약 의사를 표시합니다. 임대인이 수락하면 계약금(대체로, 렌트비 1~2주일치, holding deposit) 지급하면 집이 홀딩된다고 합니다.
- (레퍼런스 체크) 계약금을 걸고 나서, 집주인이 임차 희망자를 레퍼런스 체크합니다. 재정상태, 직장, 비자 등 조사, 엄격한 경우 직장상사 전보 및 메일주소 요구하거나, 영국 내 지인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집주인이 계약 거부시 계약금이 환불됩니다.), 레퍼런스 체크 후에도 입주는 일반적으로 수일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렌트비 지불) 보증금 및 렌트비를 6개월 이상지 선납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약연장을 안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최소 2달전 사전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 (주의사항) 1) sublet(전대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sublet인 경우 전대인과 집주인간 계약사항(계약자명, 계약기간 등)과 비자상태 확인, 주인 동의 받은 것인지 확인, 계약서에도 전대차, 집주인동의 있음을 명시할 필요), 2) 시설 및 가구 구비여부, 입주 시 주택상태보고서(inventory)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사진, 동영상 보관, 특이사항 발견 시 집주인, 관리업체 즉시 통보, 카펫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는 주인이 많다고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 등에서 Full-furnished인 집이 좋다고 합니다. 3) 모든 문서, 메일은 계약 종료시 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고, 확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침대사이나 가구뒤쪽 곰팡이, 히팅(중앙난방, 전기난방 등, 언제 히팅이 들어오는지, 개인 히팅물품 쓸 수 있는지), 보일러(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제공물품(빨래대, 침대, 옷장, 책상, 의자, 가구, 이불 등), 부엌 (쓰레기 및 음식물 처리 방법, 세탁기 등 사용가능 여부) 화장실(샤워실/화장실 분리여부, 수압, 배수, 환풍, 개인물품 및 소모품(화장지) 관리), 기타(집에 사람 초대가능여부, 가족친구 sleep over여부, 집에 총 누가 사는지 등) 5) 렌트비가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EPC 등급이 높은 집 렌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영국은 EPC 등급에 따라 에너지 관련 지출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 (보증금) 대개 집 비운 후 한달 이내 돌려주지만, 엄격한 사람은 잘 깎는다고 합니다. 보증금 감액 또는 미지급 사유가 이해할 수 없으면 www.moneyclaim.gov.uk 또는 이메일 : ccbc@hmcts.gsi.gov.uk로 클레임 걸겠다고 강력히 이야기 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서머타임제) 영국은 서머타임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는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고(한국과 시차 8시간), 그 이외 기간에는 다시 원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한국과 시차 9시간). 겨울에 해가 짧은데도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는 오후에 3~4시면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 (어린이 문화활동) 지자체, 동네 종교시설 및 도서관마다 액티비티 클래스, 리딩 클래스 등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워낙 많고 지역 축제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Central Reading에는 정기적으로 주말에 이동식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유동인구가 상당합니다.
- (의약품) 대체로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은 체인점 약국과 비슷한 Boots라는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녹지와 잔디밭이 많아서 아이들이 Hay Fever에 걸리는 경우가 꽤 있으니. 미리 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행) 영국에서 여행을 가는 시기는 보통 부활절 휴가기간(3월말~4월초), 여름방학, 크리스마스 휴가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때 많은 영국인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교통편, 항공편, 숙소를 최대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은 당일에 가까울 수록 가격의 상승 폭이 큰 편입니다. 인기있는 여행지로는 잉글랜드에서는 London, Warwick, Bath, Oxford, Bristol, Bournemouth, Exeter, Westend, St. Ives, York, Stratford-upon-Avon, Hampton Court 등이 있고, 웨일즈의 Cardiff, Swansea, 스코틀랜드 Edinburgh, Glasgow, Inverness(Loch Ness), 북아일랜드 Belfast 등이 있습니다. 런던의 공항은 Heathrow, Gatwick, Luton, Stansted 등이 있는데, 저가항공은 Gatwick, Luton, Stansted에 많이 운항을 합니다. 그런데, 레딩에 거주하신다면 Luton, Stansted 공항은 런던에서 많이 떨어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오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듭니다. 따라서, 아일랜드나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를 비행기로 가시는 경우에는 Luton, Stansted 공항보다도, 브리스톨이나 버밍엄 공항을 이용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 (친환경 의식 관련) 많은 영국인들의 친환경 정책,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오거나 습관화된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많은 이들이 다회용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고, 마트나 가게에서도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대한 소비를 자제하려는 행동이 습관화된 것 같아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레딩대학교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산학협력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도 기억에 남습니다.

< 레딩대 화석연료 기업 투자반대 캠페인 > < 레딩대 Climate Stripes(의미: 점차 상승하는 기온) >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총평) 해외 출장과 단기 여행을 제외하고, 이렇게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해 본 적이 처음인데, 정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운 좋게 Covid-19 규제가 해제된 시기에 영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KDI에서 다사다난한 영국의 2022년을 직접 체험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엘리자베스2세 여왕 관련)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에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 축제(Platinum Jubilee)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있었고, 9월에 서거한 이후에 있었던 **전국적인 조문 물결**도 있었습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여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2세가 영국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여왕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Platinum Jubilee 기간 런던 거리 >



< 엘리자베스 서거 애도기간 인파 >



- (영국 정치 관련) 영국의 여성 총리 Liz Truss와 인도 출신 총리 Rishi Sunak가 연달아 취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영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양성평등, 인종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영국 정부에 대한 영국 국민의 직설적인 비판을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국민의 인식과 글로벌 추세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수립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 (영국의 친환경 교통정책) 2022년 한 해 동안,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전략', '100% 무배출(zero-emission) 자동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언', '2050 항공분야 넷-제로(2050 Jet-Zero Strategy) 전략' 등 영국이 교통분야의 친환경 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노약자 배려의식 관련) 영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우선**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이 복잡한 런던에서도, **부모가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는 경우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먼저 탑승하기를 권유**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CAS(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를 받고, **재정증명서와 결핵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지정병원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예전에 결핵에 걸렸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받아서 현재는 결핵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자는 **Tier4(General) Student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비자 신청은 개인이 직접 웹사이트(<http://ukinrok.fco.gov.uk/ko/visiting-the-uk/visas>)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유학원이나 유학센터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어떤 분은 발품을 팔아 무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비자신청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는 1년짜리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약 1년 6개월정도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또한,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영국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비자 신청 비용 납부할 때 의료보험 비용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 납부, 구비서류 업로드가 끝나면 서울 회현역 인근에 '영국 비자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지문등록, 사진촬영, 여권 및 구비서류 제출 등을 합니다. 비자발급이 되면 여권에 비네트(Vignette) 라는 스티커가 붙여지고, 이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후 학교에서 비자(BRP)를 수령하면 됩니다.
- (출입국) 영국의 경우, 한국인은 신속입국절차 대상국가로 비대상국가보다 입국이 수월한 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2년 11월 현재, Covid-19관련 출입국 규제는 모두 폐지되었고, 영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드로 공항으로 영국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히드로공항에서 레딩 기차역까지는 열차도 운행하고, RA1이라는 공항버스가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딩 기차역까지 오시는 데에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레딩 기차역 전경 >



< RA1 공항버스 >



- (주민세 면세 신청) 학생도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세에 해당되는 지방세와 관련된 세금납부서를 받게 됩니다. 면세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가서 세금납부서, 재학증명서, 비자 사본(또는 여권)** 등을 제출하여 **면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동반자**도 지방세 납부 대상자이므로 **함께 면세 신청**해야 합니다.
- (바닥 관리 관련) 거실에 깔아져 있는 카펫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아이들이 집에서 넘어져 다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한용으로 얇은 요가 필요하시다면, **Mattress toppe, Futon mattress** 등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 **(대중교통 할인)** Full-time 학생증이 있으면 대학원생도 16-25세 학생용 레일카드(**16-25 student car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 이 카드의 연회비는 30파운드이지만 철도 승차권이 1/3 할인되므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학생용 레일카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역에 제출하거나, 철도 운영사나 기차표 예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Trainline에서 가입하였습니다. 발급은 카드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앱에 다운로드 된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일치기로 런던을 왕복할 때에는 Reading - London Paddington 같이 기차역까지만 표를 끊으면 15~16파운드이지만, 18~19파운드인 1일 **트래블카드**(런던 1~6존용)를 끊으면 런던 지하철 등을 그날 무제한 탑승할 수 있으므로 트래블카드를 예약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딩 시내에서는 **레딩 버스 전용 어플**(ReadingBuses)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하면 직접 버스에서 구매할 때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 디지털 레일카드 샘플 >



< ReadingBuses 앱 >



- **(어린이집)** 레딩대학교에 어린이집(Nursery, **Little Learners**)이 있습니다. 레딩 센터나 주거지 주변에도 수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글맵에서 Nursery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데 평가보고서는 <https://reports.ofsted.gov.u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세 이상이 되면 주 15시간까지는 무료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4세 9월이 되면 **리셉션**(Reception)이라고 해서 **예비학교 개념의 의무교육**을 시작합니다. 대체로, 초등학교 등 학교 안에 Reception이 있습니다. Reception 신청은 보통 1월부터 하지만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 근처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 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Little Learners 어린이집 전경 및 웹사이트 >



< 참고: 영국 중고 자동차 구매 관련 정보 정리 >

- 중고차 구매비용 = 차량가격 + 자동차 보험료 + Road Tax + MOT 검사비용(필요시) + 기타비용(필요시)
- 영국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발급한 카드 필요
- Auto Trader 등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고 해당 업체와 방문 약속
- 방문 후 구매 희망 자동차를 직접 확인 : 차량 사고이력, 마일리지 등 기본정보 확인(<https://www.gov.uk/check-mot-history>), 가장 중요한 것이 MOT 확인(영국은 모든 중고차는 법적으로 1년에 1회 MOT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함, MOT 기준 전부 통과할 때까지 수리, 검사해야 한다고 함)
- 딜러와 함께 인근지역 시승(엔진, 브레이크, 기타 기능 테스트)
- 차량 계약 : 5,000파운드 이상은 현금 거래가 불가능 하다고 함, 현금 거래가 가능한 가격이어도 주소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함
- 보험 가입 : Evans Halshaw에서 중고차 구매 시 동 회사에서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함, 또는 온라인 Aviva 등을 통해 보험 가입(한국에서 무사고였다는 No Claim Certificate가 있으면 보험 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함)
- Road Tax : 영국은 Road Tax를 낸 후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구매 즉시 납부할 필요, 인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 거래 직원의 동행을 요청하여 중고차 구매시 처리하는 것이 편리
- 차량 구매 전, 중고차 업체와 미리 실내외 세차서비스 무료로 해달라고 네고할 수 있다고 함
- (개인간 거래 시) 기존 소유자가 V5C/2 양식(녹색 부분, 아래 샘플 참조)을 구매자에게 전달 – 구매자 정보를 작성하고, 하단에 기존소유자 및 구매자 서명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DVLA로 송부 – 송부와 동시에 Road Tax 등 납부 – 자동차 보험 가입 – 약 3~6주 후에 구매자 명의의 V5C가 우편으로 온다고 함

- (운전시) 핸들도 우측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르고, 좌우 통행방향도 한국과 다름, 교차로, 회전교차로, 도로 진입 시 한국과 달리 우측을 먼저 확인, 영국의 좌회전(한국의 우회전)은 적색 신호등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영국의 우회전(한국의 좌회전)은 신호없이 비보호인 경우가 많음, 고속도로도 한국과 반대로 맨 우측차선이 고속차로이고, 왼쪽에 분기점이 있는 경우가 많음

8.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 수업, 과제, 육아 등으로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지역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영국 등 유럽에 1년 있는 장점이 여러 유럽국가의 다양성을 쉽게 이동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2월 01일

신 청 인 : _____ 신 영 우 _____ (인)